



광범



최민



개나리



한창욱

작년에 왔던 각설이 한옥마을에 또왔소~

한창욱·개나리·광범·최민 등 전국에 내노라 하는 명인 출연
재치있는 입담·우스꽝스러운 몸짓 등 전주시민들 사로잡아

지난 금요일, 각설이들의 재치있는 입담과 우스꽝스러운 몸짓이 전주시민들을 즐겁게 만들었다.

(사)전북문화진흥원이 주최·주관하고 전북도(도지사 송하진), 전주시(시장 김승수), 전주매일신문대표 조봉성이 후원하는 제9회 전국 품바명인전이 지난 3일 전주 한옥마을 풍남문화광장 앞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무대에 오른 한창욱, 개나리, 광범, 최민씨 등 4명은 전국에 내노라 하는 품바 명인들로, 오랫동안 전국 곳곳에서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무대와 객석 사이를 오가며 자신들의 특기로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명인들의 무대 중간에 통기타 가수 최영준씨, 대금연주자 정현국, 트로트가수 이수정·조하연·조승우씨가 축하공연에 나섰다.

조봉성 전주매일 대표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었으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있는 와중에 품바명인전을 열게 됐다”며 “이번 명인전은 올해로 9회를 맞이하게 됐다. 행사를 거듭할수록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선조들이 약자를 생각하고 나누는 미풍양속을 계승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행사가 여러분들께 기쁨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재훈 기자



진행을 맡은 품바 명인 한창욱(사진 왼쪽)과 인사말을 하고 있는 조봉성 대표.



축하공연에 나선 통기타 가수 최영준, 대금연주자 정현국, 트로트가수 이수정·조하연·조승우.(사진 왼쪽부터)



타악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는 최민.

할머니로 분장해 무대 위에서 '세상은 요지경'을 열창하고 있는 한창욱



우스꽝스러운 분장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은 개나리.



객석에서 자신의 특기를 발휘하는 최민.

무대와 객석을 오가며 열띤 공연을 펼치는 광범.